

# 穌齋 盧守愼과 晦齋 李彦迪, ‘心學’으로 맺은 학문 세계

정 호 훈\*

- I. 머리말
- II. 청년 노수신과 이언적의 만남 : ‘마음의 학문’과 「心經附註」
  - 1. 노성한 학자와 신진 기예의 조우
  - 2. 「심경부주」, ‘尊德性’의 학문 세계
- III. 노년의 노수신, 이언적 학문의 위상 정립과 옹호
  - 1. ‘朝鮮 心學의 개척자, 이언적’ 인식
  - 2. 스승의 학문 옹호 : 「大學章句補遺跋」의 작성과 「대학장구보유」 긍정
- IV. 맺음말

## 국문초록

穌齋 盧守愼의 학문에 영향을 미친 인물은 적지 않지만, 스승의 반열에서 그를 가르치고 그의 사유를 이끌며 살찌운 인물로는 晦齋 李彦迪을 꼽을 수 있다. 노수신과 이언적과의 만남은 크게 두 양상으로 살필 수 있다. 첫째, 노수신이 그의 나이 27세 되던 해에 이언적을 만나 ‘심학’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던 일이다. 이미 알지 않은 학문적 깊이를 쌓고 있던 노수신은 이때의 만남에서 ‘道問學’보다는 ‘尊德性’의 방법을 중시하는 학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언적 사후, 이언적의 문집과 그의 대표작에 대한 서문을 쓰고, 이언적

---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부교수 / jhh6085@snu.ac.kr

의 연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노수신은 이언적의 학문을 ‘心學’으로 규정하였으며, 그의 주자학에 규정되지 않는 독자적 학문 활동을 높게 긍정했다. 이언적으로부터 심학에 대한 지침을 받고 또 이언적의 학문적 위상을 긍정하고 옹호했던 노수신의 활동은 주자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사상의 자장을 벗어나 ‘존덕성’의 방법에 기초하여 새로운 학문적 방향을 모색하던 16세기 중·후반 조선 학계 일각의 움직임에 한층 풍부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다지는 일이었다.

◆ 주제어

穌齋 盧守愼, 晦齋 李彥迪, ‘道問學’, ‘尊德性’, 心學, 16세기 중·후반 조선 학계

## I. 머리말

蘇齋 盧守愼(1515~1590)의 학문에 영향을 미친 인물은 적지 않다. 스승의 반열에서 그를 가르치고 그의 사유를 이끌며 살찌운 인물은 灘叟 李延慶(1484~1548)과 晦齋 李彥迪(1491~1553)이다. 두 학자는 노수신이 평생 스승으로 섬기고 마음에 새겼는데, 그들이 노수신에게 준 가르침의 내용이나 또 서로 맺은 관계의 정도에서는 각기 다른 점이 있었다.

이연경은 聘君으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노수신의 젊은 시절의 성장을 도왔다. '기묘사화' 이후 충주에 은거하며 이 지역의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며 독특한 학풍을 세우고 살던 이연경은 노수신의 재주를 간파하여 그를 만사위로 맞이하고 또 제자로 가르쳤다. 이연경은 장인이자 스승, 노수신의 표현대로라면 '聘君先生'<sup>1)</sup>이었다. 노수신은 기묘사림의 기풍, 충주 지역 사림의 분위기를 이연경으로부터 충분히 접하며 학문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2)</sup>

이연적과의 만남, 이연적으로부터의 학습은 이연경과는 양상을 달리한다. 노수신은 27세 되던 해에 이연적에게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다.<sup>3)</sup> 노수신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는 예를 올리며 마련한 자리에서 이연적은 『心經附注』, '마음을 보존하는 법[存心]'과 관련한 몇 가지 문답을 노수신과 나누었다. 이때 논의된 주제는 당시 조선 학계에서나 노수신 개인에게 가장 절실했던 문제의 하나였기에, 두 사제의 만남은 적지

1) 이연경 사후 노수신이 지은 시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蘇齋集』卷3, 十日受聘君先生馬尾笠; 『蘇齋集』卷3, 是夜夢侍聘君先生先生爲人寫挽詞未半覺從橫幅便止曰汝可更圖以來已而寤焉和淚書記.

이 연구에 이용한 『蘇齋集』은 1665년, 盧景命이 봉화군수로 있으면서 간행한 봉화 3간본으로, 原集 10권, 年譜, 行狀, 內集 2권 합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간본은 1602년, 중간본은 1624년에 간행되었다.

2) 이연경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권오영, 「이연경의 이학적 삶과 사상」, 『조선 성리학의 형성과 심화』, 문헌, 2018 참조.

3) 『晦齋集』, 晦齋集序; 『蘇齋集』卷7, 晦齋先生集序. 이 연구에 이용한 『晦齋集』은 1631년의 옥산서원 간본이다. 1574년에 간행한 초간본에 비해 분량이 많이 늘었는데, 本集 13권·世系圖·年譜·附錄 합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이언적과 노수신 두 사람 사이에 학문적 授受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류는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때의 대화는 노수신의 사유를 확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노수신이 이언적을 다시 만난 것은 이언적의 사후, 그의 문집, 그의 저술을 통해서였다. 노수신은 국왕 선조의 명령을 받아 이언적의 문집을 교정하는 한편 이언적 후손의 의뢰를 받아 『晦齋集』의 서문과 『大學章句補遺』의 발문, 『晦齋年譜』를 작성하는 일을 통해 이언적의 삶과 학문을 깊이 있게 체휼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의 만남은, 이미 노수신의 사상이 무르익은 노년에 이언적의 학문 세계를 다시 확인하고 추모와 평가를 통하여 이언적의 사상을 드러내는 성격을 지니었기에, 일방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여러 작업을 통해서 노수신은 이언적 학문의 전체상을 나름의 시각으로 형상하고 그 학술사적 위상을 위치 지웠다. 이 과정에서 노수신은 자신의 학문을 반추하고, 스승 이언적과 자신의 관계를 구체화했다. 그런 점에서 노수신 노년 시절의 이언적은, 노수신이 세우고자 하는 학문 세계를 뒷받침함에 주요한 사유의 원천이기도 했다.

노수신과 교류했던 인물들, 특히 스승들과의 만남에 대한 연구는 노수신의 사상 나아가 그가 활동했던 16세기 조선 학술계의 성격을 살핌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언적과 노수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이언적과 노수신의 학문적 관계에 대해, 專論의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방식으로 검토해왔고 많은 사실을 밝혔다.<sup>4)</sup> 이언적이 노수신에게 스승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이제 상식이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유념하며, 노수신이 이언적·이언적

4) 『조선 朱子學 陽明學을 만나다』(신향림, 심산, 2015), 『소재 노수신 선생의 사상 정치의 새 지평』(소재노수신선생학술문화진흥회, 학자원, 2015) 등의 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의 학문을 만나는 과정을 이언적의 생존 시와 사후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하고자 하는 개념은 '心學'이다. '심학'은 당시 조선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익히고자 했던 학문을 지칭하던 명칭이었는데, 노수신은 이언적 학문의 개성을 '심학'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심학'은 노수신이 세우고자 한 학문 세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 II. 청년 노수신과 이언적의 만남 : '마음의 학문'과 『心經附註』

### 1. 노성한 학자와 신진 기예의 조우

노수신이 이언적을 만나 사생의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받은 때는 그가 27세 되던 1541년(중종 36)이었다.<sup>5)</sup> 스승 이언적은 51세였다.<sup>6)</sup> 이언적은 이때 출사하여 홍문관 부제학, 동궁 書筵官과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고<sup>7)</sup> 노수신은 아직 과거 급제 전이었다.<sup>8)</sup> 사회적 지위로나 학문의 수준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하겠는데, 하지만 이때 노수신의 학문적 깊이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수신이 학문을 익히고 숙성시킨 조건을 거론해보자면 우선, 충주 지역 유자들의 영향이 있었다. 충주 일원에는 陰崖 李耆, 十淸軒 金世弼, 灘叟 李延慶 등 기묘사화 이후 세상을 피한 많은 학자들이 은거하여 살고 있었는데,<sup>9)</sup> 노수신은 이들과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가르침을 얻고

5) 『穌齋集』 卷7, 晦齋先生集序

6) 『晦齋年譜』, 嘉靖 20年 辛丑(1541, 中宗36) 先生 51歲

7) 『中宗實錄』 卷94, 中宗 36年 3월 16일(壬寅)

8) 노수신은 20세 되던 해에 生員·進士 양시에 합격하고, 29세 때 문과에 합격했다.(『穌齋年譜』)

9) 『陰崖年譜』, 八年己丑(1529, 中宗 24) 先生五十歲, “李灘叟長古<延慶>金十淸公碩

있었다. 15세 때 이자를 만나 그의 학문을 접했고,<sup>10)</sup> 17살 때에는 이연경의 사위가 되어 그의 훈도를 받았다.<sup>11)</sup> 이연경은 沈鍵, 康惟善과 같은 인물도 사위로 맞아들여 가르쳤는데, 노수신에게서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지우이기도 했다.<sup>12)</sup> 이자를 비롯한 이들 여러 학자는 여주에 거주하던 金安國이나, 목사 朴祥 등과 교류하며 기묘사림의 이상, 지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다.<sup>13)</sup> 젊은 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었을 것이다. 이연경이 노수신, 심건, 강유선을 사위로 맞이하고 또 그들을 가르친 것은 그러한 분위기 위에서였다.

성균관에서의 학습 또한 노수신의 학문 세계를 넓히는 계기였다. 노수신은 20세 되던 해에 성균관에 입학,<sup>14)</sup> 과거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성균관의 학습 과정은 과거 공부에 치중하였기에, 이곳에서의 생활이 개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보장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인재를 만나고 또 새로운 사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 무렵 노수신의 학문적 기초는 탄탄히 잡혀 있던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6세 되던 해, 그가 지은 「時習箴」을 본 金安國이 “사장에 치

<世弼>李樽巖喜初<若水>許處士靜仲<礎>從遊講學 己卯後 灘叟以校理 退居州之龍灘 十清以參判 廢居州之知非川 樽巖處士 亦居近數舍 藍輿小艇 互相往來 窮研道義 樂而忘憂 鄉黨爲之矜式焉”

충주 지역의 이자를 비롯한 학자들의 생활과 교류에 대해서는 정만조 외, 『음에 이자와 기묘사림』, 지식산업사, 2004 참조.

- 10) 『陰崖年譜』, 八年己丑(1529, 중종 24) 先生五十歲, “盧生守愼來謁 盧公號蘇齋 嘗曰 吾少時 獲拜先生於劍巖精舍 累承教誨 後撰先生行狀 有曰 守愼得侍數夜 見讀書之餘 必引三四觥 或聯句 或記事 復端坐展策 唔咻之聲 徹於戶外 如是者窮宵竟晷 而溫潤之色 毅重之氣 有不可得而窺其涯涘者云”
- 11) 『蘇齋年譜』, 十年辛卯, 先生十七歲, “甥于灘叟李先生之門<遂學於李先生. 益知爲己之學>”
- 12) 『退溪集』 卷47, 有明朝鮮國朝奉大夫行弘文館校理 知製教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李公墓碣銘并序
- 13) 『十清集』 卷4, 附家先記聞, “己卯後 先生被謫 蒙放居忠原知非川上 以訓誨後進爲樂 時慕齋亦在驪江 教授朴斯文衡常言少時並遊兩先生門下 清軒專以經學爲重 慕齋至於科文 亦皆指導 以此慕老門下從遊者尤盛云”
- 14) 『蘇齋年譜』, 十三年甲午, 先生二十歲, “中生員進士兩試<入大學 雞鳴 冠帶而坐 讀書不輟 至夜分乃寢>

중하는 유자[詞章之儒]"로는 쓸 수 없는 내용이라며 놀란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sup>15)</sup>

이언적과의 만남에서 노수신이 배운 내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 또한 이언적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얻은 시간도 많지 않았다. 통상의 師生 간에 볼 수 있는 잦은 접촉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배움의 수준은 만만치 않았다. 사제 관계를 맺은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후 이언적에게서 익힌 사항을 노수신은 다음 몇 가지로 회고했다. 『회재집』의 서문을 작성한 60세<sup>16)</sup> 때의 일이다.

선생은 멀리서 바라보면 근엄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온화함이 느껴지는 분이셨다. 선생을 대면하여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그 내면의 학문을 엿보고, 마침내 程敏政의 『심경부주』 중에서 의문 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여쭙었다. 이어서 '存心'의 요지에 대해 물었더니, 한참 뒤에 선생이 당신의 손바닥을 가리키며 말씀하기를 "여기에 物이 있는데, 쥐면 부서지고 쥐지 않으면 달아난다."라고 하셨다. 물러 나와 내 마음을 반성해 보고서야 그것이 '忘助'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대충이나마 깨닫고, 그 가르침이 친절하고 의미가 깊은 것을 더욱 기뻐하였다. 얼마 있다가 작고하신 스승 灘叟 선생이 선생과喜怒哀樂의 未發에 대해서 논하시고는 나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 이에 내가 또 내심 스스로 감탄하며 "이것은 子貢이 얻어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7)</sup>

짧은 술회이지만, 위 이야기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노수신이 정민정의 『심경부주』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했다는 점이다. 문맥으로 본다면, 노수신이 평소 『심경부주』를 공부하다가 몇 가지 의문을 지니고 있었고, 이언적과 만나자 이를 질의하여 의문을 해소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만남에서 노수신이 처음으로 『심경부주』를 보았고 그

15) 『蘇齋年譜』, 十九年庚子 先生二十六歲, “是年間 慕齋金先生以知館事入太學 試諸生以時習箴 歷考羣製 嘆人才不競 及見先生之作 大悔前言輕發 稱賞不已曰 此豈詞章之儒所能及 宣廟初年 經筵官許曄註解此箴以進 ”

16) 『蘇齋年譜』, 二年甲戌 先生六十歲, “閏月 出肅又力辭 不許 有答南彥經書論人心道心序晦齋李先生集 撰年譜”

17) 『蘇齋集』 卷7, 晦齋先生集序

런 뒤 끊임없이 질문을 가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노수신이 『심경부주』에 대해 가진 의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언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처음 만난 이언적에게 『심경부주』의 의문 나는 점을 노수신이 질문했다는 사실은 그가 평소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마음을 보존하는[存心] 방법을 구하는 노수신의 질문에 대한 이언적의 답변을 ‘忘助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언적이 손동작과 설명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뿐 그 의미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수신에게서 ‘마음의 보존’은 맹자가 이야기한 바, ‘잊지도 않고 조장하지도 아니함[勿忘勿助長]’<sup>18)</sup>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언경과 이언적이 회로애락의 未發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이언경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전해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실에서 이언경과 이언적이 회로애락의 미발과 같은 성리학의 핵심 주제를 같이 토론할 정도로 가까웠고<sup>19)</sup> 또 두 스승이 절친의 관계에서 노수신의 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로애락의 미발 문제는 性과 情, 心의 관계에 대한 성리학-주자학의 핵심 주제였다.

노수신이 기억하는 이언적의 세 가지 가르침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랐으나 한결같이 ‘심(心)’ 혹은 ‘마음의 공부’와 관련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던 무렵, 이언적이나 노수신 두 사람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쉽게 정리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다스리거나 보존하는 등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최고의 관심사이자 학습 문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 잊어버리는 것[忘]과 조장하는 것[助]. 이는 『孟子』公孫丑(上)의 浩然章에서 인용된 말로 곧 자연의 도를 어기고 억지를 부려 일을 그르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浩然之氣를 기르는 것이 마치 곡식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아예 방치해 버려 가꾸지 않아도 안 되고 또한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고갱이를 뽑아 조장하여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19) 두 사람의 교유를 볼 수 있는 자료로 1543년(중종 38), 이언적이 충주로 이언경을 만나러 갔다가 지은 시가 있다.(『晦齋集』卷3, 中原訪長吉不遇)



비록 짧은 시간의 배움이었지만 노수신이 이때 받은 영향, 깨우침은 컸던 모양이다. 『海東野言』에는 노수신이 이언적을 만난 2~3년 뒤, 이언적이야 말로 ‘학문하는 사람[學問人]’이라는 말을 그의 친구에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佐郎 盧守愼 寡悔는 나의 벗이다. 일찍이 내게 묻기를, “자네가 학문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하기에, 내가 당세의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을 일일이 거론하여 대답하니, 모두 아니라고 말하였다. 내가, “자네는 어떤 사람을 보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李復古(李彦迪의 자)가 이에 가깝다.” 하였다. 이 문답을 한 때가 癸卯·甲辰 연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과회는 이미 그때에 학문의 대체를 보고 깨쳤는데, 나는 글자 배우는 것만 알고 학문의 일은 알지 못하였다. 과회는 그때 나이가 겨우 30이니 일찍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다.<sup>20)</sup>

발언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 자료에 나오는 계묘·갑진 연간은 1543년(중종 38)·1544년(중종 39)인데, 노수신이 30세 되던 해와 맞추어 보면 1543년에 해당한다. 이언적을 만난 이후 노수신이 가진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발언이다.

요컨대, 노수신이 이언적을 만나 사제 관계를 맺을 때, 그의 문제의식은 『심경부주』에 관해 그리고 ‘마음의 보존’에 관해 질의를 하는 데서 볼 수 있듯,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언적과 만남 이후 그 관심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만남에서 노수신이 접한 마음과 관련된 학문 세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 2. 『心經附註』, ‘尊德性’의 학문 세계

노수신이 이언적과 만나 질의하고 배운 마음에 관한 이야기의 실체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두 사제의 만남에서 오고간 논의가 16세기

---

20) 『海東野言』 3, 中宗 上. 이 말을 한 친구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노수신의 절친인 허엽일 가능성이 있다. 『해동야언』의 찬자인 許筠은 許曄의 둘째 아들이다.

3학술의 場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실체는 모호하다. 이 대목에서 노수신이 거론한 『심경부주』를 주목하게 된다. 노수신이나 이언적에게서 『심경부주』는 간단한 책이 아니었다.<sup>21)</sup> 『심경부주』를 들여다본다면, 두 사람을 맺게 했던 학문의 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심경부주』는 명대 학자 정민정의 작품으로, 송대 학자 진덕수가 편찬한 『심경』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편찬한 책이다. 찬자들의 시대 배경에서 송학적인 분위기와 명학적인 분위기가 겹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尙書』의 ‘人心 道心’ 16자 心法으로부터 시작하여 주희의 「敬齋箴」에 이르기까지 총 33장의 내용을 갖춘 『심경』은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의 핵심 수양론을 문헌적으로 망라하고 있어 성리학을 익히고 실천함에 더없이 좋은 지침서였다. 어찌 보면 이 책 한 권으로도 송대 성리학의 복잡다단한 논의와 수양의 방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이 책이 갖는 장점이었다.

그런데 정민정은 ‘尊德性’을 중심에 두고 ‘道問學’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심경』의 방향을 재설정, 『심경』 본래의 글에 자신의 의견을 새로이 더하였다.<sup>22)</sup> 존덕성 중심의 朱陸調和論적인 『심경』 이해였다. 『심경부주』는 말하자면 진덕수의 『심경』을 정민정의 방식으로 탈바꿈하며 재탄생한 책이었다. 독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진덕수의 『심경』과 정민정의 『심경부주』로부터 얻는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21) 훗날 康復誠이 정리한 노수신의 연보에서는 이때의 만남을 “노수신이 이언적에게 『심경부주』에 대해 질문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蘇齋年譜』 辛丑 先生二十七歲, “是歲 晦齋李先生入京 先生以書爲贊而禮焉 質問心經附註”) 노수신의 후학들 또한 만남의 중심에 『심경부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었던 모습이라 하겠다. 유의하여 보아야 할 대목이다.

22) 李俸珪, 「《心經附注》에 대한 조선성리학의 대응 - 李滉과 宋時烈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12, 1995; 김낙진, 「程敏政 사상의 朱陸和會의 특성과 조선 성리학자들의 반응」, 『유교사상문화연구』 31, 2008; 홍원식 외,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예문서원, 2008

조선에서의 『심경』 학습은 15세기 중엽부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sup>23)</sup> 하지만 1492년 명에서 『심경부주』가 간행되고 이후 조선에서 이를 수입하여 읽으면서 상황이 크게 변화,<sup>24)</sup> 많은 학자들은 『심경부주』를 통해 『심경』을 읽기 시작했다. 『심경부주』는 1523년 이전에 이미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16세기 전반기에는 『소학』, 『근사록』 등과 더불어 성리학의 학습을 대표하는 주요한 도서가 되었다. 16세기의 자료에서 '심경'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대부분 『심경부주』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사상계는 이 책을 통하여 이전에 겪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학계의 변화 또한 새롭게 일어났다.<sup>25)</sup>

『심경부주』가 보급되던 초창기, 이 책에 관심을 기울인 학자들은 대체로 기묘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언급할 수 있는 인물은 조광조이다. 17세기에 작성된 『心經標題』에서는 그가 이 책을 중시했다는 기록이 나온다.<sup>26)</sup> 『심경표제』가 후대의 자료이기에, 조광조가 이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했다는 사실의 신빙성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광조의 학문에 『심경부주』가 미친 영향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sup>27)</sup> 김안국 또

23) 15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孫肇瑞과 崔忠成가 『심경』을 읽고 연구한 모습을 그들의 문집 『格齋集』과 『山堂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윤제, 「조선 전기 '心經'의 이해와 보급」, 『韓國文化』 18, 1996, 189~190쪽 참조.

24) 여기에 대해서는 윤병태, 「退溪와 心經附註-退溪 書誌의 研究 其三-」, 『韓國의 哲學』 8, 1979; 김윤제, 「조선 전기 '心經'의 이해와 보급」, 『韓國文化』 18, 1996 참조.

25) 조선전기 『심경부주』를 둘러싼 학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근래의 연구 성과와 경향에 대해서는 엄연석, 「국역 심경주해총람 해제」, 『국역심경주해총람』(상), 동국서, 2014 참조.

26) 이에 대해서는 이봉규, 앞의 논문, 87~88쪽; 김윤제, 앞의 논문, 193쪽 참조. 17세기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心經標題』 凡例, “此書本非中國所重 惟我靜菴先生表章之退溪先生篤好之”; 『南溪集』 卷68, 跋聽松先生心經, “篁墩附註作於弘治壬子 距正德己卯間閱二紀 訖未聞爲中國學者所重 而獨我靜菴先生一時諸賢亟讀而好之 仍得表出鉅梓 盛行於東方 不幸旋遭神武之禍 於是繇先生以及晦齋退溪南冥諸賢 輒各抱持是書 退隱於山海之間 誦習紬繹 以成其學 稱引傳授 殆與近思錄班 此蓋當時所行一本也”

27) 신항림(앞의 책, 35~36쪽)에 의하면,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람은 格物致知보다는 尊德性 공부에 치중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기묘사람의 이러한 태도와 『심경부주』

한 『심경부주』를 중시했다. 현재 학계 일부에서는 그가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1519년 무렵에 『심경부주』를 간행했다고 이해하고 있다.<sup>28)</sup> 훗날 임종 시에 그는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을 제자인 許忠吉에게 전해주시기도 했다.<sup>29)</sup>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 조선학계의 『심경부주』 학습은 억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5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책을 읽고 논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생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묘사림들을 정치적으로 신원하고 그들의 학문적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던 즈음이었는데,<sup>30)</sup> 조식, 이황, 이언적 등 당대의 주요 인물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조식은 30세 무렵에 『심경부주』를 접했다. 1530년(중종 25)에 周世鵬과 이 책을 강론하기도 하고,<sup>31)</sup> 1531년(중종 26)에 친구 李浚慶에게서 『심경부주』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sup>32)</sup> 이준경과 교유하며 그에게서 『심경』을 선물 받는 모습은 특이하다. 그가 이 책을 선물 받은 시점은 과거를 작파하고 ‘학문’에 집중하다가 ‘本地家鄉’의 경지에 들어서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였다.<sup>33)</sup>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조식은 친구 李霖에게서

사이에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8) 윤병태, 앞의 논문, 73쪽.

29) 이 이야기는 허엽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허엽은 허충길을 통하여 『심경부주』를 구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晦齋集』, 晦齋集跋, “嘉靖辛丑 先生侍講東宮 請讀心經附註 然後曄始知有此書 即求于友人許忠吉處”; 『草堂集』, 許南溪墓銘, “受業金慕齋先生 臨終 授以心經 吾亦得以始見之”

30) 이러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모습은 중종 27년 홍문관에서 올린 차자이다. 이 차자에서는 예둘러 표현했지만, 기묘년에 죄를 입고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中宗實錄』 卷73, 중종 27년 5월 12일 己未)

31) 『武陵雜稿』 附錄 卷2, 愼齋先生年譜, “中宗二十五年 庚寅……九月 訪曹南冥於山海亭 講心經, 庸, 學等書”

32) 『南冥集』 卷2, 書李君原吉所贈心經後

33) 이준경이 이 책을 선물로 준 것은 조식이 과거를 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자모의 얼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서였다고 한다. 송인수는 『대학』을 선물로 주었다. (『南冥集』 卷2,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 “年已三十餘矣 又慮爲文中程式 更求平易簡實之書觀之 始取性理大全讀之 一日 閱至許氏之說……遂厭科舉之學 亦復廢輟 專意學問 漸就本地家鄉入焉 政如弱喪而不知歸 一朝忽見慈母之顏 不

도 이 책을 선물 받고 있었다.<sup>34)</sup>

조식에게 『심경부주』를 기증한 이준경은 15~16세기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광주 이씨가의 일원으로, 학적 緣脈으로 보면 무척 흥미로운 인물이다. 이준경은李克堪의 증손으로 李潤慶의 아우이고 이연경과는 사촌간이다. 형 이윤경과 함께 이연경에게서 배웠기에<sup>35)</sup> 이연경의 학문적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노수신과는 동문이기도 하다. 이준경이 어떻게 『심경부주』를 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가 이 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심은 아마도 이연경 학단의 성격과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황은 1533년(중종 28) 무렵 성균관의 황씨 성을 가진 上舍生으로부터 이 책을 구해 읽고는<sup>37)</sup> 그 내용에 크게 매료되었다. “나는 『심경부주』를 얻은 이후 비로소 心學의 연원과 心法의 정미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평생 神明같이 대하였고 이 책을 공경하기를 엄한 아버지와 같이 하였다.”<sup>38)</sup>는 뒷날의 술회는 그가 『심경부주』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을 남김없이 전해준다. 이황은 이 책을 四書와 『근사록』 아래에 두지 않을 정도로 중시했다.<sup>39)</sup> 그러나 그는 뒷날, ‘존덕성’ 중심의 주류초화론을 비판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보완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sup>40)</sup> 그 결과로 나온 「心經後論」<sup>41)</sup>은 향후 조선 학계의 『심경부주』 이해에

知手足之蹈舞 友人原吉 見而喜之 以心經授焉 眉叟以是書與之 當此時 有若夕死而無憾焉者”)

34) 『南冥集』 卷2, 題李君所贈心經後

35) 『東阜遺稿年譜』, “先生八歲 與伯公蒙放還京……比長 與伯公就學於從兄灘叟先生 預聞趙靜菴性理餘論 學有淵源 遂有所造>”

36) 『穌齋集』 卷9, 有明朝鮮國資憲大夫兵曹判書李公神道碑銘并序, “守愼以半子 學于李徵君灘叟先生 見其與二堂弟道義相敬重 心竊偉之”

37) 『艮齋集』 卷5, 溪山記善錄[上], 記退陶老先生言行

38) 위와 같음.

39) 『退溪集』 卷41, 心經後論.

40) 李俸珪, 「《心經附注》에 대한 조선성리학의 대응 - 李滉과 宋時烈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12, 1995, 15~17쪽.

41) 『退溪集』 卷41, 心經後論. 이 글을 지은 때는 1565년이다. 이황은 조목과의 토론을 거치며 『심경부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이 글로 마무리했다. 1573년 유희

중요한 지침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심경부주』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이언적이었다. 『심경부주』에 대한 이언적의 태도나 관심은 여러 인물들과는 대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군주론-帝王學의 차원에서 『심경부주』의 역할을 거론, 이 책의 의미를 학자 개인의 학습 범위를 넘어서 드러내려고 했다. 1541년(중종 36), 書筵에서 이 책을 강론하고자 한 일이 그것이다.

어제 경연에서 副提學【이언적】이 말하길, 『대학연의』는 이미 진강하였는데, 眞德秀의 『心經』도 공부에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하였다. 그 책 두 件을 大內로 들여 오도록 하라. 세자의 경우 서연에서 그것을 講讀하게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한가 할 때 열람하게 해야 하는지, 시강원에 이르라.<sup>42)</sup>

진덕수의 『심경』은 실제로는 『심경부주』를 가리킨다. 서연에서 이 책을 강론하도록 주장한 것은 조선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동궁의 교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던 이언적은 제왕학 학습에 이 책만큼 절실할 교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43)</sup>

이언적이 서연에서 『심경부주』를 강론하자고 했던 요청은 제왕학을

준은 『심경부주』의 말미에 이 글을 부록으로 실어 간행하자고 건의, 선조의 허락을 얻었다.(『宣祖實錄』 卷7, 선조 6년 1월 30일 辛亥)

42) 『中宗實錄』 卷94, 중종 36년 3월 23일(己酉), “傳于政院曰 昨日經筵 副提學【李彥迪】言大學衍義已爲進講 而眞德秀所撰心經 亦甚有關於觀覽云 其冊二件入內 世子則可於書筵講之乎 燕閑覽之乎 言于侍講院”; 『草堂集』, 祭晦齋李先生墓文, “嘉靖庚子 先生入侍東宮 勸進心經 乃知有此書 得覓而讀之”

43) 이언적이 강조한 제왕학의 요체는 ‘心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언적은 학문을 本末로 나누고, 근본이 되는 학문은 삼대의 심학이며, 『史記』와 같은 역사서, 『大學衍義補』와 같은 典章 法書는 말단의 학문으로 규정, 군주는 삼대의 심학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정치란 군주의 心術에 달려 있으며, 그 심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삼대의 심학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中宗實錄』 卷86, 중종 33년 1월 21일 丙申; 『中宗實錄』 卷92, 중종 34년 10월 20일 甲申) 여기서 이언적이 강조한 ‘심학’은 성리학의 지향을 표현하는 용어일터인데, 『심경부주』를 중시한 이언적의 경우 그 심학에 이르는 방법으로 『심경부주』의 ‘尊德性’을 더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위한 학습의 단계를 새롭게 열었거니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모양이다. 許曄의 경우, 이언적의 이발언으로부터 『심경부주』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후로 김안국의 제자인 허충길에게서 이 책을 구해 읽음으로써 학문의 요체를 터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뒷날 그는 이언적에게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sup>44)</sup> 주세붕과 같은 학자는 이언적에게 편지를 보내어 『심경』의 어려운 점을 질의하기도 했다. 1537년(중종 32)에 있었던 일이다.<sup>45)</sup>

이상 살핀 대로 1530년대의 조선 학계에서 중시되는 책 중의 하나는 『심경부주』였다. 노수신이 이언적을 처음 만나 『심경부주』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였던 데에는 이언적이 『심경부주』를 학습의 중심에 두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스스로도 『심경부주』를 읽고 있었던 사정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성균관의 舍生들에게 『심경』이 읽히고 있었던 상황, 스승 이연경의 사촌인 이준경이 조식에게 이 책을 선물로 준 사정 등으로 본다면 노수신은 이미 이 책을 접하고 있었다고 보아 좋다. 노수신에게서 이언적과의 만남은 『심경부주』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였다.

요컨대, 27세 노수신이 이언적과 만나던 시기 당대 조선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던 책은 『심경부주』였고, 이언적이나 노수신 모두 이 책을 중시하였으며, 노수신은 이 책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 노성한 학자에게서 평소 가진 의문을 풀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는 사실은 이 시기 학계나 이언적과 노수신의 사유 활동에서 朱陸調和의, ‘존덕성’을 더 중시하는 『심경부주』의 학문 세계가 아주 가까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道問

44) 『晦齋集』, 附錄, 玉山書院記[許曄] “予雖未及攜衣於先生之門 而聞先生之語 得見心經附註 竊自尊之 以爲吾之師矣”; 『晦齋集』, 晦齋集跋, “嘉靖辛丑 先生侍講東宮 請讀心經附註 然後曄始知有此書 卽求于友人許忠吉處 敬讀終卷 潛玩體驗則方寸之間似有所主 讀閱經史 稍知路脈 至今不下陷於惡 無非先生之賜也 常竊以爲先生 曄之聞而學之之師也 景仰之懷無時或弛”

45) 『武陵雜稿』 附錄 卷2, 愼齋先生年譜, “中宗三十二年 丁酉 先生四十三歲, 四月 除昆陽郡守……爲書質心經疑義於晦齋李先生”

學'의 방법을 중시하는 처지에서 본다면 이 세계는 경계하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이황이 『心經後論』을 지었던 사실은 이와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황의 글 이전, 조선에서는 아직 그러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언적이나 노수신 또한 그에 대한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지니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핀다면, 노수신이 이언적을 만난 일은 『심경부주』로 대표되는 성리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던 이언적 학문을 구체적으로 접하며, 자신의 고민을 풀며 이 학문 세계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언적을 만난 이후 그를 진정한 학자로 평가했던 데서 유추하거니와, 노수신은 『심경부주』의 지향과 방법에 큰 확신을 가지고 매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인우가 남긴 '恥齋日錄'의 기록<sup>46)</sup>은 1542년 초, 노수신이 홍인우, 권덕여, 허충길 등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심경부주』 학습에 집중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1542(중종 37)

정월 16일 저녁, 寡悔<盧守愼>·致遠<權德興>과 함께 『심경』을 토론하였다.

3경이 되어 파하다.

2월 초하루, 國善<許忠吉>·寡悔와 밤 늦도록 『심경』을 강론하고 질의하다.

서른이 채 안된 젊은 학자들에게 『심경부주』가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사다. 노수신, 허충길, 홍인우 등이 밤늦도록 『심경』의 내용을 읽고 그 주제에 몰두하는 과정을 선연히 그려볼 수 있다.<sup>47)</sup>

노수신이 27세 되던 해 이루어진 이언적과의 만남은 『심경부주』 혹은 '마음의 학문'을 둘러싸고 형성된 지적 분위기, 학문 풍토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존심의 방법이나, 사단칠정의 미발에 관한

46) 『恥齋集』, 卷2, 日錄鈔, 壬寅

47) 여기서 노수신과 절친했던 홍인우가 이언경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의 아우 洪仁祉 또한 이언경의 제자였던 점을 기억할 수 있다. 젊은 학자들이 교육에 이언경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의문과 관심은 모두 『심경부주』의 세계에서 다루는 주요한 주제였기에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이언적은 노수신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학문의 요지를 간명하게 알려주었고, 노수신은 노성한 학자로부터 평소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신진과 기성의 두 학자는 당대 가장 뜨거웠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만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모범적인 만남이었다 하겠는데, 노수신으로서는 이때 자신이 추구할 학문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새겼을 것으로 보인다. 진도 유배 시절의 학문 활동도 이때의 학문적 관심과 공부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sup>48)</sup>

청년 노수신이 이언적을 만나 배운 일은 이언적의 학문을 접하고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이후 그를 만나 묻고 답하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차단되었다. 乙巳土禍가 일어나면서 이언적은 강계로 유배되고 그 또한 진도로 유배되었기 때문이다. 노수신은 진도 생활 7년 뒤에 스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sup>49)</sup>

### Ⅲ. 노년의 노수신, 이언적 학문의 위상 정립과 옹호

#### 1. ‘朝鮮 心學의 개척자, 이언적’ 인식

노수신과 이언적의 학문적 인연은 이언적의 사후에 다시 이어졌다. 19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중앙 정계로 돌아와 선조대의 학계와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노수신은 이언적의 글과 생애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언적 학문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애와 사유

48) 유배 시기 노수신의 학문 활동에 대해서는 신향림, 『조선 朱子學 陽明學을 만나다』, 심산, 2015 ; 소재노수신선생학문화진흥회, 『소재 노수신 선생의 사상 정치의 새 지평』, 학자원, 2015 참조.

49) 『晦齋集』, 晦齋集序, “自予入海 先生出塞 歲才七周而塞訖至海 追悔悼惜 每中夜潛然至恨冥頑獨久於世也”

를 가다듬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작업은 직접적으로는 선조가 왕위에 오른 뒤 세상이 크게 바뀌어 이언적이 정치적·학문적으로 복권되고 이에 따라 그의 문집, 그의 저술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sup>50)</sup> 노수신은 선조의 명령을 통하여 그의 문집을 교정하며 그의 글을 접했고, 후손들의 의뢰를 받아 문집의 서문을 쓰거나 연보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 작업은 대부분 그의 나이 60세를 넘겨서 진행되었다. 이언적과 처음 대면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 이때의 만남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양상을 달리하였다. 자기 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한 한 사람의 학자로 성장해 있었던 점, 스승의 육성을 들으며 사유를 확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남긴 遺文과 생애의 흔적을 통하여 스승을 만나는 점, 이언적의 삶과 학문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그를 대면하는 점 등이 젊은 시절에는 찾을 수 없던 새로움이었다.

이언적의 삶과 사유를 돌이켜보는 이때의 경험은 노수신 스스로 자신의 학문 세계를 점검하고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노수신은 미처 알지 못했던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었다. 한편 이 작업은 본질적으로 스승 이언적의 삶과 학문을 사회적으로 소개하고 그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다. 간행되는 문집과 저술을 매개로 조선의 학자들은 이언적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수신과 이언적 두 師弟의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과 비교하자면 성격이 크게 변해 있었다.

노년의 노수신이 이언적의 학문을 만나며 그가 펼치는 활동 양상은 여러 양태를 보인다. 우선 꼽을 수 있는 일은 그의 학문적 성격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고 그 학술사적 위상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회재집』의 서문 작성, 이언적의 연보<sup>51)</sup> 편찬이 여기에 속한다. 이 일들은 모두

50) 『晦齋年譜』에 따르면, 선조 원년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로 증직되고, 선조 2년에 ‘文元’의 시호를 받고 명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51) 『穌齋集』卷7, 晦齋先生年譜後敘. 이 글을 작성한 시점은 1574(선조7) 3월 상순이다.

1574년 『회재집』을 초간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노수신이 이언적 문집의 서문을 쓰게 된 연유는 후손들의 의중이 직접적이었지만, 이황의 힘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회재집』 간행은 이언적의 아들 李全仁이 명종 말년부터 준비하며 진행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이황의 힘에 크게 의존했다. 이황은 이전인의 부탁으로 이언적의 行狀을 작성하고, 문집의 교정을 보는 등 여러 면에서 문집 간행을 도왔다. 이때 이황은 문집의 서문은 유고를 淨寫한 뒤 當世의 名賢에게 신중하게 구하라고 조언했다.<sup>52)</sup> 노수신이 『회재집』의 서문을 작성하게 된 데는 그러한 준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보 편찬은 『회재집』의 서문 작성을 마친 후, 후손의 부탁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언적의 연보를 정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는 이언적의 제자인 노수신 밖에 없었을 것이다. 노수신은 연보를 작성하며 程子의 연보를 朱子가 말아서 했던 사실을 상기했다.<sup>53)</sup> 겉으로는 자신이 연보 정리를 맡는 일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이를 언급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언적의 학문 세계를 자신이 이어간다는 의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연보는 이언적 문집에 실린 行狀과 家藏 자료를 활용, 이언적의 官歷, 世系, 출처와 진퇴 및 학문, 德業, 言論, 風旨 등을 간략하게 정리했다.<sup>54)</sup> 이 작업에서는 가능한 한 사실을 충실하게 드러내고자 이언적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삼갔다.

노수신의 이언적 인식은 특별했다. 그는 이언적을 진정한 학자로 평가하고, 그 학문의 성격을 '心學'으로 규정했다. 그에게 이언적은 조선의 유일한 심학자였다. 물론 이러한 형상화는 이언적의 사후, 그리고 노수신이 노년에 이르러 정리된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철저하게 노수

52) 『退溪集』 卷13, 答李全仁 丁卯(명종 22년, 1567), “前云行狀 草定已久 猶未正寫 人回不得付送 恨恨 隨當繕寫 因便送傳 來月望前後 似可達也……作序 不敢輕易爲之 既正寫遺藁後 用以更求當世之名賢 爲可”

53) 『穌齋集』 卷7, 晦齋先生年譜後敘, “噫 惟朱夫子能譜程先生 若朱譜 未免後儒惜其任意增損 今余何人 敢當斯托 顧雖不得考亭心 亦嘗見伊川面耳”

54) 『晦齋年譜』, 文元公晦齋先生年譜後敘, “本集行狀家藏拾遺 詳其爵里世系出處進退 與夫學問 德業言論風旨在人耳目者”

신의 관점에 기초한다. 이언적 학문의 개성이 이 용어로 압축되어 표현되었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이언적의 모든 것을 담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가) 孟子가 “학문을 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求放心’(도망간 마음을 되찾는 것) 일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文元公 晦齋 선생으로 말하자면 참으로 이른바 학문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내면에 마음을 써서 誠意에 기반을 두고 致知에서 발명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은 모두 진실함이 있었고 밝음은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 어버이를 봉양하는 데는 효를 다하였고, ……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때나 환란에 처하였을 때까지도 한결같이 마음에 보존한 것을 근본해서 응대하기를 지극히 마땅하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心學에 힘쓴 분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仁知의 덕을 이루고 繼往開來의 업적을 수립한 분이 우리 三韓에서 나온 것이다.

나) 그 시는 온화하면서도 평이하고 정직하고, 그 文은 명백하고 치밀하였을 뿐만 아니라 …… 예전에 보고 들었던 것과 모두 부합하였다. 그러고 나서야 선생의 마음이 하루도 풀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징험할 수 있었다.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수습되어 專一하고 虛靜해지면 道理가 밝게 드러나서 자연히 유출되는 것이 이와 같아지는 것이니, 이를 어떻게 속이겠는가. 이어서 생각해 보건대, 맹자가 이에 대한 요령을 이미 명백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 마침내 느낀 바를 써서 돌려보내어 三韓의 心學에 오직 선생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바이다.<sup>55)</sup>

노수신이 이언적의 학문을 살피면서 활용한 기준은 맹자의 ‘求放心論’이었다. 학문의 요체는 ‘구방심’이어야 하는데, 이를 이언적은 실천했으니 진정한 학자라 함이었다. 이언적이 구현한 ‘구방심’의 학문적 효과는,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내면에 마음을 써서 誠意에 기반을 두고 致知에서 발명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은 모두 진실함이 있었고 밝음은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라거나,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수습되어 專一하고 虛靜해지면 道理가 밝게 드러나서 자연히 유출되는 것이 이와 같아

---

55) 『晦齋集』, 晦齋先生集序

지는 것이니, 이를 어떻게 속이겠는가. 이어서 생각해 보건대, 맹자가 이에 대한 요령을 이미 명백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앞서 살핀 ‘존덕성’ ‘도문학’의 방법과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존덕성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 하겠다.

노수신의 이러한 판단은 실상은 스승의 가르침을 압축하는 일이었다. 그 판단 위에서 자신의 학문 또한 돌이켜 반성했다. ‘구방심’의 방법을 맹자가 제시하고 스승이 구현했건만, 자신은 그러하지 못했다 함이었다.

맹자가 이에 대한 요령을 이미 명백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나 같은 자는 돌이켜 구할 줄을 모르고서, 이러한 것은 俗學이고, 이러한 것은 異學이며, 이러한 것은 儒者의 학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실로 선생에게 죄를 지은 것이니, 또한 슬퍼할 만한 일이다.<sup>56)</sup>

특정 학문 대상을 두고 속학이니, 이학이니, 유자의 학문이니 분별하는 일이 ‘求放心’의 방법, 이언적의 심학의 방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노수신의 반성은 그 언명이 담고 있는 성격이 어떠하든, 그가 노년에 스승을 만나는 행위가 스승을 무조건 추종하여 박제화 하는 일도 아니고, 자신의 입지를 제 3자 평가자의 위치에 무덤덤하게 두는 일도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스승의 학문을 통하여 그는 진정한 학문의 길, 학문의 방법을 다시 되새기고, 이를 재차 조선 학계에 천명하였다.

이언적의 학문을 ‘심학’으로, ‘구방심’의 진정한 학자로 定位하는 일은 한편으로 20대 후반, 이언적에게서 배운 내용을 소환하고 자신의 학문이 실상은 그로부터 깊어지며 확장되어왔음을 밝히는 일이기도 했다. 2장에서 살폈지만, 노수신이 『회재집』의 서문에서, 이언적에게서 ‘마음’과 관련한 내용을 배웠다고 술회했던 사실은 그의 학문이 따지고 보면 이언적이 세운 ‘심학’과의 접합점 위에서 펼쳐졌음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노수신의 기억 속에서 20대 후반 이언적에게서 배운 내용은 변형되거나 왜곡되었을 수 있겠지만, 이때 그가 배우고 새겼던 공부는 그가 평생 불

56) 『晦齋集』, 晦齋先生集序

들어 잡고 추구했던 주제였다. 노수신은 60세의 노년에 다시 스승의 학문을 대면하며, 자신의 학문적 성취와 지향을 반성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이언적의 학문을 ‘심학’으로 평가한 인물은 노수신만이 아니었다. 허엽을 거론할 수 있다. 허엽은 이언적의 손자 李浚에게 써준 글에서, ‘심학’은 하늘이 이씨 가에 심은 家學이라고 하여, 이언적 학문의 개성을 이로써 강조하였다.

노선생의 心學은 온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대의 아버지는 심학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그 향방을 아니 …… 하늘이 심학의 한 맥을 이씨 가에 심어서 전하게 하려는 것인가.<sup>57)</sup>

허엽이 이언적에게 가지는 감정은 지극했다. 그는 이언적을 스승으로 높이고 있었다. 이언적에게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허엽은 이언적으로 인하여 『심경부주』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자신의 학문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겼다. 허엽에게 이언적은 ‘들어서 배운 스승’이었다.<sup>58)</sup> 허엽의 이러한 태도는 무척 흥미롭다. 허엽의 학문은 서경덕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서경덕에게서 받은 내용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허엽은 자신의 학문 한편에 이언적의 ‘심학’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겠다. 허엽은 『회재집』을 초간할 때 발문을 지으며 참가했는데,<sup>59)</sup> 거기에는 그러한 인연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노수신이나 허엽이 이언적의 학문을 ‘심학’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일은 무척 흥미롭다. 먼저, 노수신과 허엽, 두 사람의 학문적

57) 『草堂集』, 說, 送李浚說 晦齋庶孫, “古人之訓子弟曰 富貴功名 非人力可致 唯有世不失文獻家風則足矣 老先生之心學 通國所知 而乃父之於心學 不教而自知向方 人皆異之 意者 天以心學一脈 種之李家 而使有傳乎”

58) 『晦齋集』, 晦齋集跋, “昔者竊有志於學 而未知其方 嘉靖辛丑 先生侍講東宮 請讀心經 附註 然後曄始知有此書 即求于友人許忠吉處 敬讀終卷 潛玩體驗 則方寸之間 似有所主 讀閱經史 稍知路脈 至今不下陷於惡 無非先生之賜也 常竊以爲先生 曄之聞而學之之師也 景仰之懷 無時或弛”

59) 『晦齋集』, 晦齋集跋

관심사 혹은 관점이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두 사람은 학문적 배경이 크게 달랐다. 그러면서도 상호 공유하는 점이 많은 40년 지기였다.<sup>60)</sup> 1543년(중종 38), 노수신이 고향으로 내려가자 허엽이 글을 지어 이별을 기리기도 하고,<sup>61)</sup> 또 선조 초반 노수신의 젊은 시절 작품 「時習箴」을 허엽이 주해하여 임금에게 올리기도 한 사실은<sup>62)</sup>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음으로, 노수신이나 허엽과 같은 제자·후학의 입지에서 선학 이언적의 학문을 ‘심학’으로 평가하는 일은, 조선 학계 내 이언적의 학문적 위상을 평가하고 그 계승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중차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스승의 학문이나 자신들의 학문이 지향하는 방향 혹은 그 학문의 방법을, 16세기 후반의 조선 현실에서 심학이라는 이름 위에서 평가하고 견인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시기 운위되던 ‘심학’의 범위는 일률적이지 않아 다층적이었다. 心을 본체론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여 ‘심학’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양명학이 들어와 여러 사람에게 읽히고 영향을 주었다. 이황의 양명학 변칙론<sup>63)</sup>이 나온 배경이기도 했다. 정민정의 『심경부주』와 연관을 갖는, 주륙조화적인 성격의 ‘심학’도 존재하였다. 이황과 같이 『심경부주』의 방법을 문제 삼는 학자도 있었다. 이황은 「심경후론」을 지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륙조화적인 요소, ‘존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주의해야 함을 분명하게 제시했다.<sup>64)</sup> 이황에 이르러, 『심경부주』는 무심히 읽어서는 안되는 책, 禪學과 같은 육상산의 학문으로 유도할 위험성이 큰 책으로 위치 지

60) 『蘇齋集』 卷7, 祭許草堂曄, “始遇於四十年之前 吾太輝也 復遇於四十年之後 吾太輝也 此吾之所以久而敬 喪而慟 惟生死焉依歸 嗚呼哀哉”

61) 『草堂集』, 送盧寡悔序. 이 글에서 허엽은 그의 스승 서경덕에게서 들은 바 “夫學之本在於謹獨”과 교훈을 써서 주었다.

62) 『蘇齋年譜』, 十九年庚子先生二十六歲, “是年間 慕齋金先生以知館事入太學 試諸生以時習箴 歷考羣製 嘆人才不競 及見先生之作 大悔前言輕發 稱賞不已曰 此豈詞章之儒所能及 宣廟初年 經筵官許曄註解此箴以進”

63) 『退溪集』 卷41, 傳習錄論辯<傳習錄 王陽明門人記其師說者 今舉數段而辯之 以該其餘>

64) 여기에 대해서는 이봉규, 앞의 논문, 1995, 15~17쪽 참조.

위졌다. ‘심학’을 추구하더라도, 이제 주류조화적인 ‘심학’이 아니라 이황식의 ‘심학’이어야 했다.

이언적의 학문을 ‘심학’이라고 평가하고 『회재집』을 매체로 이를 조선에 드러내고자 한 노수신·허엽의 의식은 이황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판단과는 구별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이황과 같이 『심경부주』의 주류화해적 요소를 비판한 흔적은 없다. 이들은 주자학의 방법과 지향을 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태도 또한 갖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은 주자학의 방법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허엽은 ‘氣’를 중시했고, 數學을 좋아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황으로부터 크게 배척받았다. 노수신은 「人心道心辨」과 같은 작품을 통하여 주류조화론적인 요소를 더 한층 발전시켰고, 나아가서는 양명학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sup>65)</sup>

이언적의 학문을 ‘심학’으로 평가하는 후학들의 사고 속에서, 16세기 전반기 심학의 문제의식이 이언적 → 노수신·허엽의 계통으로 계승 발전되는 한 흐름을 볼 수 있다.

이상 살핀 대로 노수신은 생애 후반 이언적의 생애, 그리고 그의 문집을 정리하며 이언적과 다시 만났다. 이 과정에서 노수신은 이언적의 학문을 ‘심학’으로 평가하며 최고 수준의 학자로 위치 지웠다. 이는 그 스스로의 지향을 담은 행동이기도 했는데, 노수신은 이언적이 남긴 글을 통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가다듬었다. 사후의 스승에게 글로써 얻은 배움은 생전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하면서 확장되어 있었다.

## 2. 스승의 학문 옹호 : 「大學章句補遺跋」의 작성과 『대학장구보유』 긍정

이언적의 학문을 심학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조선 학계에 천명함과 더불어, 노수신은 이언적의 학문에 대한 조선 사회 일각의 오해를 풀고

---

65) 노수신의 사상과 양명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항림, 『조선 朱子學 陽明學을 만나다』, 심산, 2015 참고.



그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 작업은 첫 번째 사안과 유사하면서도 양상을 조금 달리하여 방어적이고 자기 옹호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언적은 을사사화의 피화자로서 삶을 온전히 마치지도 못했고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주자학의 본류를 벗어났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언적의 학문을 옹호하고 그 위상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은 후학의 입장에서나 학계 전반의 처지로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언적의 학문적 성취를 잘 드러내는 학술 활동은 젊은 시절 孫叔噉, 曹漢輔와 無極·太極 논변을 벌인 일,<sup>66)</sup> 그리고 유배 시절 『求仁錄』, 『大學章句補遺』(이하 『대학보유』), 『中庸九經衍義』, 『奉先雜儀』 등을 저술한 일로 꼽을 수 있다. 전자의 활동은 이황으로부터, “유학의 본원을 밝히고 이단의 邪說을 물리쳤으며”<sup>67)</sup> 송대 학자 특히 주희로부터 얻은 게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황은 ‘정밀한 견해와 홀로 터득한 묘리’가 이 작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극찬했다.<sup>68)</sup>

유배 시절의 『구인록』, 『대학보유』, 『속대학혹문』, 『중용구경연의』<sup>69)</sup>, 『봉선잡의』 등은 이언적의 사유가 무르익은 시점의 작품이었다. 이언적은 유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학식과 관심사를 유배지 江界에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화시키며 이 시기 조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뚜렷한 성과를 산출했다. 작품 하나하나가 다른 학자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주희의 『대학장구』 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대학』을 해석한 『대학보유』, 『속대학혹문』은 문제적 작품이었다.<sup>70)</sup>

이언적은 錯簡은 있으나 闕失은 없다는 입장에서 『대학』을 이해, 經文과 傳文을 조정 재배치했다. 『대학장구』와 비교한다면, ‘知止’, ‘物有’ 두

66) 『晦齋年譜』, 이언적이 27세, 28세 되던 해의 일이다.

67) 『晦齋集』 附錄, 行狀

68) 이황은 반면 이언적 후기의 작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의 평을 남기지 않았다.

69) 이 책은 63세 되던 1553년(명종 8)에 저술되었으나, 이 해 말 이언적이 질환으로 세상을 뜨면서 완성되지 못하였다.

70) 1549년(명종 4), 회재 59세 10월에 『大學章句補遺』가 완성되었다.(『晦齋年譜』)

절을 경문에서 제외하여 격물치지전으로 설정하고, 本末傳으로 이해되었던 ‘聽訟’ 절을 경문의 결론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해는 주희의 『대학』 해석에 비판적이었던 송·명대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도 다른 이언적만의 개성이 있었다.<sup>71)</sup> 이언적은 자기의 작업에 대해 주희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그 견해를 인정하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아래 표에서 『대학장구』와 『대학보유』의 구성을 살필 수 있다.

〈표 1〉 『대학장구』와 『대학보유』의 구성 비교(경과 전5장까지)

\*『대학장구』= 『장구』, 『대학보유』= 『보유』

\*\*00-01 등의 수는 『장구』에서의 경과 전의 구절 순서

經·傳	『대학장구』	『대학보유』	비고
經	<p>經-00-01 大學之道，在明明德，在新民，在止於至善.</p> <p>經-00-02 知止～能得.</p> <p>經-00-03 物有～近道矣.</p> <p>經-00-04 古之～格物.</p> <p>經-00-05 物格～天下平.</p> <p>經-00-06 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p> <p>經-00-07 其本亂而未治者否矣；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未之有也.</p>	<p>經-00-01 大學之道，在明明德，在新民，在止於至善.</p> <p>經-00-04 古之～格物.</p> <p>經-00-05 物格～天下平.</p> <p>經-00-06 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p> <p>經-00-07 其本亂而未治者否矣；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未之有也.</p> <p>傳-04-01 子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p> <p>傳-04-02 無情者不得盡其辭，大畏民志，此謂知本.</p>	<p>『장구』의 밑줄 : 『보유』에서 경문의 지위를 잃음</p> <p>『보유』의 굵은 글씨 : 『장구』의 傳文에서 첨가됨</p>
傳1장	<p>釋明明德</p> <p>傳-01-01 康誥～自明也.</p>	左同	

71) 董槐, 王柏 등은 ‘知止’, ‘物有’, ‘聽訟’ 절을 지지격물전으로 파악했다. 이에 비해 이언적은 ‘物有’, ‘知止’의 순으로 격물치지전을 재구성하고, ‘聽訟’ 절은 경문의 말미에 배치했다.

이언적의 『대학』 해석에 대해서는 최석기, 『조선시대 《大學章句》 개정과 그에 관한 論辨』, 보고사, 2011 ; 이동희, 「李彦迪의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34, 2008 ; 이원석, 「이언적(李彦迪)의 『대학(大學)』 이해 - 『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을 중심으로」, 『大同哲學』 83, 2018 참조.

傳2장	釋新民 傳-02-01 湯之~其極.	左同	
傳3장	釋至於至善 傳-03-01 詩云, 邦畿千里, 惟民所止. (중략) 傳-03-09 君子賢其賢而親 其親, 小人樂其樂而利其利, 此以沒世不忘也.	左同	
傳4장	釋本末 傳-04-01 子曰, 聽訟, 吾 猶人也. 必也使無訟乎! 傳-04-02 無情者不得盡其 辭, 大畏民志, 此謂知本.	釋格物致知 經-00-03 物有本末, 事有 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經-00-02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傳-05-01 此謂知本. 傳-05-02 此謂知之至也.	『장구』의 ‘釋本末’ 章이 『보 유』에서 없어짐 『보유』의 격물치지 전은 『장 구』의 경 문 [‘물 유’, ‘지 지’]으로 재구성. ‘물유’, ‘지지’ 순 서 바뀜
傳5장	補傳: 釋格物致知 傳-05-01 此謂知本. 傳-05-02 此謂知之至也.	釋誠意	『보유』에 서 補傳 없어짐

『대학장구』와 비교할 때 『대학보유』의 체제는 파격적이었다. 경문과 전문의 위치 조정을 통해, 『대학』에서 중시하는 점 또한 다르게 이해되었다. 첫째, 경문의 조정을 통하여 ‘청송’ 구절이 중시되고, ‘물유’와 ‘지지’ 두 구절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둘째, ‘물유’와 ‘지지’를 격물치지전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대학장구』에서 거론한 격물치지의 방법과 내용<sup>72)</sup>이 약화되고 격물치지의 의미가 다르게 설정되었다.<sup>73)</sup> 셋째, 본과

72) 『大學章句』傳5章, “閒嘗竊取程子之意以補之 曰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至吾之知 在

末의 영역과 관계가 달라졌다. 주희는 본과 말을 明明德과 新民으로 구분했으나, 이언적은 사회적 관계[君臣, 父子 등] 혹은 관계상의 일에서 근본이 되는 것과 말단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해했다. 형태상, 『대학장구』와 『대학보유』의 차이는 적지 않았다.<sup>74)</sup>

이 저술은 그 자체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다. 뒷날 李廷龜는 이 책의 성취를 높게 평가하고 조선에 왔던 명나라 병부시랑 宋應昌에게 소개하기까지 했다.<sup>75)</sup> 하지만 주희의 학문을 중심에 두고 학술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성과를 쉽게 용인하지 못했다.

이언적의 『대학보유』에 대해 조선에서 가장 걱정 어린 눈으로 보았던 학자는 이황이었다. 아직 『대학보유』가 책으로 간행되기 전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았고, 이황 또한 이 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이황은 이언적의 작업을 단호하게 비판했다. 이황이 보기에 이언적의 『대학』 이해는, 주희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송·명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했다.

근래 禹性傳을 만났는데 그가 전하길, 공이 “근세 중국의 儒者 중에 『대학』의 격물치지장은 빠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 경문의 ‘지지’와 ‘물유’ 두 구절은 격물치지의 문장인데, 잘못 경문에 배치되어 있다.”고 했다고 하니

即物而窮其理也 蓋人心之靈莫不有知 而天下之物莫不有理 惟於理有未窮 故其知有不盡也 是以大學始教 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裡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73) 이 점에서 본다면 이언적의 『대학』 이해는 ‘道問學’을 중시하는 주희의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4) 이언적의 『대학』 이해에 대해서는 최석기, 『조선시대 《大學章句》 개정과 그에 관한 論辨』, 보고사, 2011 ; 이동희, 「李彦迪의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34, 2008 ; 정호훈,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의 『대학집록(大學集錄)』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韓國思想史學』 51, 2015 ; 이원석, 「이언적(李彦迪)의 『대학(大學)』 이해 - 『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格物致知) 개념을 중심으로」, 『大同哲學』 83, 2018 참조.

75) 『月沙集』 卷41, 晦齋先生五箴忘機堂書後跋

다. 이 설에 대해 공의 뜻은 어떠한지요. 저는 왕노재와 권양촌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李復古公 또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공이 본 학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베껴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sup>76)</sup>

알려주신 『今獻集言』에는, 『대학』의 지지 등의 여러 구절을 격물치지장의 착간으로 여기고 이 구절을 헐어서 저 구절에 보완하려고 하는, 인용한바 선유의 여러 견해가 갖추어져 있군요. 저는 예전에 권근의 『입학도설』에 이 견해가 있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宋史』의 王魯齋傳에서 또한 그가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근래 또 李玉山 선생이 공을 들어 이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마냥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上舍 禹性傳을 만나 그대가 선유의 여러 설을 담고 있는 자료를 구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편지에서 그 책을 구해보고 의혹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sup>77)</sup>

두 통의 편지는 모두 李湛에게 쓴 글로, 작성 시기는 1564년(명종 9년)이다. 두 편지에는 이황이 우성전으로부터 『대학장구』를 부정하는 중국 유자들의 견해가 담긴 책을 이담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이담에게 편지를 보내어 『금현회언』을 구하는 사실이 적혀 있다.<sup>78)</sup> 이황이 평소 『대학장구』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학자들은 물론이고 이언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황은 이때, 주희의 견해를 벗어나려는 여러 학자들의 생각이 가진 부당함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sup>79)</sup> 그들이 破經, 곧 경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다고까지 단언했다.

여러 유자들은 이들 몇 구절에 ‘知止’ ‘知先後’ ‘知本’과 같은 말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 구절들을 옮겨서 격물치지의 전으로 삼을 수 있겠다.’고만 생각하였지,

76) 『退溪集』 卷11, 答李仲久(甲子)

77) 『退溪集』 卷11, 答李仲久(甲子), 別紙

78) 『금현회언』은 명대 학자 高鳴鳳이 편집한 유서이다. 陳探이 편찬한 「正學編」 등 수십 편의 자료를 담고 있었는데 『대학』에 관한 여러 견해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에 이 책이 들어온 때는 16세기 중반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李湛이 마침 구해 보고 있었다.

79) 『退溪集』 卷11, 答李仲久 甲子, 別紙. “諸儒之說 有不可從者三焉”

이들 여러 구절의 문장에 격물치지의 의의가 결코 없다는 점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다. 格物補傳의 이로움을 보지 못하고 마침 ‘破經의 죄’를 얻었으니, 그것이 가능한가.<sup>80)</sup>

주희와 다르게 『대학』의 구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과정’으로 보는 판단은 그것이 성인에 대한 도전과 연관되었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sup>81)</sup> 그런데 이때 이황이 이언적의 견해에 대해 가진 지식은 사실과 조금 달랐다. 그는 이언적이 ‘치지’ ‘물유’ ‘청송’ 3구절을 격물치지전으로 배치했다고 알고 있었다.<sup>82)</sup> 이 점은 ‘물유’와 ‘치지’를 격물치지전으로 보고, ‘청송’ 구절은 경문의 결론이라는 견해를 가졌던 이언적의 생각과는 크게 달랐다.<sup>83)</sup>

노수신의 『대학보유』 발문은 세간의 공격과 비판, 오해에 맞서 『대학보유』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글이었다. 이 발문을 작성한 시점은 1584년(선조 17), 노수신의 나이 70세 때였다.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학문이 무르익었을 때의 작품이라고 하겠는데,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이언적의 손자 李浚·李淳의 부탁 때문이었다. 이준 형제는 발문이 작성되기 10여 년 전, 노수신에게 이언적의 『대학보유』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푸는 한편으로 이 책이 가진 가치를 적극적으로 살피달라고 두 차례나 부탁했다. 이때 그들은 변론문까지 준비했다.<sup>84)</sup> 노수신이 우의정에

80) 『退溪集』 卷11, 答李仲久 甲子, 별지, “諸儒徒見此數節中有知止知先後知本等語 意謂可移之以爲格致之傳 更不思數節之文 頓無格致之義 未見補傳之益 適得破經之罪 其可乎哉”

81) 17세기의 학자 濶松 趙任道는 이황이 이언적의 작업을 부정하여 ‘徒得毀經之罪而已’ (『濶松集』 권3, 雜著, 管窺瑣說 七條)라고 말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황의 평가가 후학들에게 미치고 있던 한 사례라 하겠다.

82) 『退溪集』 卷11, 答李仲久 甲子, 별지, “復古李公自云 略聞先儒有此說而未得見 惟以己意取經之物有本末一節爲首 次之以知止 終之以聽訟 以爲格致之傳”

83) 훗날 이언적의 후손들은 이 점을 들어 이황이 이언적의 『대학보유』에 대해 잘못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이황이 뒷날 잘못을 깨달아 『대학보유』에 대한 예전의 견해를 뒤집은 글을 쓰려고 했으나 돌아가시는 통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황이 이담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학보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황의 정론이 아니라는 인식이었다.(『關西問答錄』, 上盧相國書)

오른 뒤<sup>85)</sup>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다.

노수신이 이 발문의 청탁을 받은 시점이 『대학보유』가 초간 되기 전 인지 이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대학보유』 초간본은 1575년에 경주에서 간행되었는데,<sup>86)</sup> 여기에는 노수신의 발문이 실리지 않았다. 이 상황과 발문의 상관성을 따져본다면, 후손들은 노수신의 발문을 받아서 책을 간행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신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발문 없이 간행했다가 발문의 필요성을 느껴서 초간 후 그 작성을 부탁했을 수도 있다. 조선의 관행으로 본다면, 발문을 붙여서 간행하려다가 준비가 되지 않아 이언적의 글로만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여하하든, 이준 형제는 이 책의 발문을 부탁할 때 이 책에 대한 학계의 오해 혹은 공격을 정리하고 노수신이 이를 풀어주기를 기대했다.

이언적의 『대학보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기를 바라는 이준 형제의 마음은 실상 이황의 평가 틀 속에 묶여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앞서본 대로 이황의 평가는 '破經의 죄'를 언급할 정도로 엄격했다. 하지만 이황은 그와 같이 엄한 평가를 내렸음에도 이언적 학문을 크게 긍정하였으며, 그를

84) 『蘇齋集』 卷7,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先生之孫浚嘗見囑曰 先祖此書 不爲人知 冤痛在心 惟先生一言 悟天下後世 後與其弟淳 作辨寄示 勉督之爾來且十餘年矣”

변문은 『關西問答錄』의 부록에 “上盧相國書”란 이름으로 실려 있다. 『관서문답록』을 둘러싼 제반 갈등상은 김건우, 「『關西問答錄』의 간행 과정 및 회판 시비」, 『장서각』 14, 2005 참조.

85) 실록에 따르면, 노수신은 1573년(선조 6) 2월에 우의정에 임명된 뒤 선조 11년 7월 까지 역임했다.

86) 이언적의 『대학보유』는 1575년(선조 8)에 慶州府에서 초간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皇明萬曆三年(1575)歲在乙亥春慶州府開刊’의 간기가 실려 있다. 『大學補遺』-『續大學或問』 두 책을 싣고 있는데, 이언적의 서문과 주희 서문 외는 별다른 서·발문이 없다. 초간본은 매우 귀하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다.(D151.52-이63)] 초간본에는 아직 노수신의 발문은 실리지 않았다. 1600년 重刊本을 간행하며 노수신이 작성한 발문을 실었다. 중간본은 규장각 소장본을 확인할 수 있다.(一叢古181.1-Y54d; 奎1203)

현창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후손으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준 형제는 준비한 변론문에서, 『대학보유』에 대한 이황의 평가는 잘못 전해진 소문을 듣고 내린 것이며 이황은 뒷날 그 잘못을 깨닫고는 『대학보유』를 긍정하는 글을 작성하려다 세상을 떠나는 통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sup>87)</sup> 그들은 이황이 ‘致知’ ‘物有’ ‘聽訟’ 3구절을 격물치지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이언적의 초창기 견해를 본 사람의 견문을 잘못 전해 들었기 때문이며, 그 사실을 이황이 뒤늦게 깨닫고 『대학보유』의 만년본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새로이 제시하려고 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sup>88)</sup>

노수신은 이준 형제의 요청에 즉각 답하지 못했다. 작업의 성격 상 바쁜 관직 생활 중에 손을 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보다 실제적으로는 『대학보유』의 성격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程朱의 대학자 이래 중국에서 경험한 『대학』 해석의 역사를 자료상 문헌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 의미를 제대로 포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언적의 『대학보유』는 중국과 조선에서의 『대학』에 대한 이해의 역사 위에서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수신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나 조정으로 복귀한 이후 중국학자들의 ‘대학설’을 충분히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문헌으로 혹은 자료로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황의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었던 상황도 노수신이 발문 작성에 주저했던 요인일 수 있었다.

87) 『關西問答錄』, 附錄, “上盧相國書退溪先生初年 未得見先祖更定之書 偶聞人之誤傳 便有此論 晚得先祖更定之書 然後沈潛玩繹 翻然悔悟 服其用意之深 所見之卓 欲作一書以明前日傳聞之誤 而奄遭梁木之壞 此乃斯文之不幸”

88) 이들의 이러한 의견에 따른다면, ‘物有’와 ‘知止’의 두 구절을 격물치지전으로 보고, ‘聽訟’ 구절은 경문의 결론으로 삼은 이언적의 견해를 이황이 인정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황의 문집이나 여타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뒷날 이황의 후손들이 『관서문답록』에 실려 있는 「上盧相國書」의 이 내용은 조작되었다고 하여 문체 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실상에 대한 증명은 거의 불가능한데, 필자는 이준 형제가 가졌던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처했던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노수신이 이 작업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데에는 이러한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후손의 처지에서 이 일은 절실하기 그지없었는데, 작품을 받아본 때는 첫 의뢰 후 10년의 세월이 지나서였다. 이준이 다시 노수신을 찾아 이 일을 부탁하고 동시에 이순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노수신은 크게 놀라며 이를 수락했다.<sup>89)</sup> 그리하여 1583년 12월, 모친상을 마친 뒤 상주에 머무르며 『改正大學』을 찬집하고,<sup>90)</sup> 이듬해 2월 既望에 발문을 마무리했다.<sup>91)</sup>

노수신은 이언적의 『대학』 이해를 중국 송·명대 학자들의 사상 전통 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했다. ‘물유’, ‘지지’를 격물치전으로 이해하고 ‘청송’을 경문의 결어로 삼는 이언적의 이해 방식은 중국 여러 학자들의 독법 전통과 무관하지 않되, 이언적만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자의 遺書로서 『대학』처럼 상세한 책이 없지만 또 『대학』처럼 착간된 경우도

89) 『穌齋集』 卷7,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先生之孫浚嘗見囑……今復叩廬 不得見 滯僑固請曰 前事也 繼聞淳亡 爲之驚呼 且曰 敢不敬諾 子姑去”. 이준이 재차 노수신을 만나 발문을 의뢰했던 시간은 노수신이 어머니 상을 치루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수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주에 있다가 임금의 명령으로 几筵을 서쪽으로 옮겨 여막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예제를 엄격히 지켜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준도 그를 찾아왔다가 대면하지 못하고 며칠 여관에 머무르다가 겨우 부탁할 수 있었다.(『穌齋集』 卷7,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後與其弟淳 作辦寄示 勉督之爾來且十餘年矣 今復叩廬 不得見 滯僑固請曰 前事也”)

90) 『穌齋年譜』. 이 책의 찬집은 아마도 발문을 작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노수신은 이준에게 집필을 약속한 후, 158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료를 모으고 「대학장구보유발」을 작성했다.

91) 이때 찬집한 노수신의 ‘개정대학’은 노수신 사후 『大學集錄』으로 간행되었다. 『大學集錄』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신항림, 「盧守愼 詩에 나타난 思想 研究 : 朱子學에서 陽明學으로의 轉變」,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조선 朱子學 陽明學을 만나다』, 심산, 2015); 최재목, 「조선에서 주자 “大學章句”에 대한 한 도전 -노수신의 《大學集錄》을 중심으로-」, 『陽明學』 27, 2010; 정호훈, 「소재(穌齋) 노수신(盧守愼)의 『대학집록(大學集錄)』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韓國思想史學』 51, 2015; 川原 秀成, 「豊穰な 知の世界 -退溪學成立前後の朱子學をめぐる-」, 『中國思想史研究』 39, 2018 참조.

없다. 처음 두 程子가 이것을 이정하려 했으나 미진했고, 주자에 이르러 완전하게 된 듯했다. 이내 文靖公 董槐가 특히 ‘지지’ ‘물유’ ‘청송’ 3절을 드러내어 격물치지의 傳으로 삼았고, 王柏·黃震·宋濂·方孝孺·蔡清 등의 견해도 모두 이와 같았다. 다만 채청은 중간의 ‘물유’ 구절을 첫 머리에 두었으니, 이것은 우리 선생님의 견해와 부절을 합한 듯 일치했다. 다만 우리 선생님은 마지막 구절을 위로 경문과 연결하여 그 결어로 삼았는데, “정자를 따른 점이 다르다.”고 하셨다.<sup>92)</sup>

말하자면 『대학보유』는 맥락 없이 나온 작품이 아니었다. 이언적의 견해를 승인하는 처지에서 본다면, 오히려 주희의 『대학장구』는 합리적이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노수신은 ‘물유’ ‘지지’를 격물치지전으로 삼고, ‘청송’절을 경문의 결론으로 삼는 이언적의 견해를 충분히 긍정하며, 『대학장구』를 구성한 주희의 생각을 완곡하게 비판하였다.

우선 격물치지전과 관련해서는, 『대학장구』에서 表裏·精粗, 全體·大用의 의미로 격물치지전을 해석한 것에 대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격물치지 補傳을 읽어 보자면, 表裏·精粗라는 내용으로 本末·終始를 해석하고, 全體·大用이란 개념으로 知止·能得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으니 잘못 아닌가.<sup>93)</sup>

本末·終始, 知止·能得은 이언적이 『대학보유』에서 격물치지전으로 설정한 구절이고, 표리·정조, 전체·대용은 주희가 『대학장구』에서 격물치지보전을 해석한 내용이다.<sup>94)</sup> 청송의 경문과 관련해서는

無訟의 경우 (경문에서 말한) ‘근본’이 됨과 정말 서로 부합하는데, 주자는 무슨 이유로 이것을 八條·修身의 근본으로 삼아서 논의를 요약하는 결론으로 삼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근본’과 ‘말단’ 두 상대하는 것에서의 ‘근본’으로 삼아 유례없

92) 『穌齋集』 卷7,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93) 『穌齋集』 卷7,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試就補傳而讀之 以表裏精粗 釋本末終始 全體大用 釋知止能得 不見其有不合 非耶”

94) 『大學章句』 傳四章, 釋本末, “是以大學始教 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裡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는 해석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다.<sup>95)</sup>

라고 하여, 주희가 어떤 이유로 청송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知本’의 ‘本’을 ‘本末’의 ‘本’으로 여기고 그와 연관하여 의미를 해석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장구』에서는 ‘본말’에 대해, 명덕을 ‘本’으로 신민을 ‘말’로 보아 명덕을 크게 강조하였다. 노수신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이언적이 제기했던 『대학보유』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온 것이라 하겠다.

노수신의 이언적 옹호는 그의 학문에 대한 긍정과 敬服이자 한편으로는 주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학문 활동을 펼쳐가는 당대 학계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그가 보기에 이언적의 견해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결코 公論이 아니었다.

經籍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一家의 일이 아니니,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道에 무슨 해가 되겠는가. 그러나 衆人의 믿음이 오래되어, 새로운 견해를 두고는 망령되었다고 이르니, 이는 편벽된 것으로 어찌 公論이라 하리오<sup>96)</sup>

이와 같이 노수신은 경문에는 쉼문이 없으나 착간이 있다는 견지에서 『대학』을 이해한 이언적의 견해를 크게 긍정했다. 나아가 慮를 思로, 至善을 中으로, 정치의 귀결을 仁으로 마무리하는 이해 방식에 대해서도 전현들이 거론하지 않았던 내용이라 하여 최대한 긍정했다.<sup>97)</sup>

요컨대, 노수신의 『대학보유』 이해는 전적으로 이언적의 견해를 수용하고 긍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스스로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

95) 『蘇齋集』 卷7,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至如無訟 與爲本正相合 不知朱子何故 不作八條修身之本 以成說約之結 乃作兩物相對之本 以起無例之釋”

96) 『蘇齋集』 卷7,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蘇齋集』의 서문을 쓸 때 노수신은 이미 『대학보유』의 견해를 卓見이라 평가하고 있었다.(『蘇齋集』 卷7, 晦齋先生集序, “大學章句補遺之卓見”) 그러므로 이때 작성한 ‘대학보유발’에 들어 있는 노수신의 생각은 없는 견해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

97) 『蘇齋集』 卷7,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若夫以慮爲思 以至善爲中 因論爲治而歸之仁 蓋又前賢所未發者 其旨矣乎”

에 구애받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노수신은 이언적의 작업이 『대학』을 다양하게 보려는 송·명대 학자들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주희가 살피지 못한 점을 밝혀낸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학보유』를 살피는 노수신의 시선, 방식은 철저하게 이언적의 논의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대학』을 이해하는 방식 혹은 『대학』의 정치론에 대한 견해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어긋나거나 충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sup>98)</sup> 이를 통하여 노수신은 스승 이언적의 학술적 성과가 조선 사회에서 장애 없이 수용되고 단단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 IV. 맺음말

이언적과 노수신, 두 학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두 학자의 삶과 학문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晦齋 李彥迪 - 穌齋 盧守愼으로 이어지는 학술사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고 밝히는 과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수신과 이언적의 학문적 만남이 ‘心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점에 유의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젊은 시절, 노수신은 이언적과의 만남을 통해 심학의 정수를 맞볼 수 있었고, 이로부터 학문의 방향을 보다 명료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이 시절 두 사람을 가교했던 심학은 程敏政의 『심경부주』의 방법과 지향에 연관되어 있었다. ‘道問學’보다는 ‘尊德性’을 더 중시하는 문제의식을 스승과 제자는 공유했고, 노수신은 향후 그 의식을 더욱 발전시켜갔다.

노년기, 노수신은 이언적이 남긴 글과 저술, 이언적의 생애를 통해 다시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언적은 俗學이니 異端이니 儒學이니 하는 분별을 넘어서 심학의 세계에 거니는 대학자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98) 이언적의 정치론에 대한 검토는 향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로는 김정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정치사상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정호훈, 앞의 논문, 207~212쪽 참조.

노수신은 이언적을 조선 최고의 심학자로 위치 지우는 한편으로, 그가 이론 학문이 제대로 인정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했다. 『회재집』의 서문, 『회재 연보』, 『대학장구보유』의 跋文 등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성과였다.

노수신에게서 이언적은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이언적에게서 노수신은 또한 학문의 동반자였다. 운명적으로 엮이는 두 사람의 同行은 특히 노수신의 후반기 활동, 노수신의 글을 통하여 본격화되었다. 당대 조선에 살았던 학자들, 후대의 학자들은 많은 경우, 이언적의 글과 사상, 이언적과 노수신의 학문적 관계를 노수신의 글을 통해 확인하고, 노수신의 눈을 빌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조선에서 이언적의 학문·사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의 사유를 전파하고자 고심했는데, 노수신의 역할은 그중에서도 중심을 이루었다. 노수신이 남긴 글은 노수신의 생각을 담은 그릇일 뿐만 아니라 이언적을 이해하는 창이기도 했다.

주자학의 세계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던 이언적, 노수신의 학문은 독자적 영역을 가지면서, 또한 서로 연결되며 당대 학계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 흐름의 성격을 이 글에서는 노수신의 언명을 빌려 '心學'이라고 했다. 심학이란 개념이 가진 함의가 적지 않기에, 이언적과 노수신의 학문을 설명함에 이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적절한가, 보다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필자는 '심학'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이들의 학문을 주자학, 양명학과 같은 체계의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도문학'보다는 '존덕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주자학, 양명학과 같은 여러 학문을 소화하며 자기 사유로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들의 사유는 주자학과는 적지 아니 달랐지만 그렇다고 양명학과 일치하지도 않았다. 이들이 중시했던 '심학'은 주자학이 대세를 점해가는 16세기 조선 사상계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힘으로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심학' 경험은 16세기 조선 학술의 지형을 풍부하게 만들었거

니와, 17세기로 가면 白湖 尹鑄, 西溪 朴世堂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16세기 이언적-노수신의 ‘심학’이 17세기 학계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확장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자료

『晦齋集』 『十清集』 『穌齋集』 『退溪集』 『武陵雜稿』 『南冥集』 『草堂集』 『艮齋集』  
『月沙集』 『澗松集』  
『晦齋年譜』 『穌齋年譜』 『陰崖年譜』 『東臯年譜』 『大學補遺』 『退溪先生言行錄』  
『心經標題』 『關西問答錄』 『海東野言』

### 논저

소재노수신선생학술문화진흥회, 『소재 노수신 선생의 사상 정치의 새 지평』, 학  
자원, 2015

신향림, 『조선 朱子學 陽明學을 만나다』, 심산, 2015

정만조 외, 『음애 이자와 기묘사림』, 지식산업사, 2004

홍원식 외,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예문서원, 2008

권오영, 「이연경의 이학적 삶과 사상」, 『조선 성리학의 형성과 심화』, 문현, 2018

김진우, 「『關西問答錄』의 간행 과정 및 휘판 시비」, 『장서각』 14, 2005

김낙진, 「程敏政 사상의 朱陸和會의 특성과 조선 성리학자들의 반응」, 『유교사상  
문화연구』 31, 2008

김윤제, 「조선 전기 '心經'의 이해와 보급」, 『韓國文化』 18, 1996

김정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정치사상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엄연석, 「국역 심경주해총람 해제」, 『국역심경주해총람』(상), 동과서, 2014

윤병태, 「退溪와 心經附註-退溪 書誌의 研究 其三-」, 『韓國의 哲學』 8, 1979

이동희, 「李彥迪의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34, 2008

李俸珪, 「『心經附注』에 대한 조선성리학의 대응 - 李滉과 宋時烈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12, 1995

이원석, 「이언적(李彥迪)의 『대학(大學)』 이해 - 『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  
(格物致知) 개념을 중심으로」, 『大同哲學』 83, 2018

정호훈, 「소재(穌齋) 노수신(盧守愼)의 『대학집록(大學集錄)』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韓國思想史學』 51, 2015

최재목, 「조선에서 주자 “大學章句”에 대한 한 도전 -노수신의 《大學集錄》을 중심으로-」, 『陽明學』 27, 2010

川原 秀成, 「豐穰な 知の世界 -退溪學成立前後の朱子學をめぐって-」, 『中國思想史研究』 39, 2018



Abstract

The academic encounter between *Roh Su-sin*(盧守愼)  
and *Lee Eon-jeok*(李彦迪)

— focusing the Shimhak(心學) —

Jeong, Ho-hu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the study of *Roh Su-sin* was *Lee Eon -jeok*. Not much time was spent in Roh when he met with Lee and was taught. It was the first time that Roh received an answer to his questions about the study of the mind from Lee when he was 27 years old. *Roh Su-sin*, who had already accumulated a deep academic depth, was impressed with the study of preserving and nurturing the mind.

The second meeting occurred after the death of *Lee Eon -jeok*. *Roh Su-sin* studied his thoughts through the writings and books left behind by his death. At this time, *Roh Su-sin* highly affirmed the ideological scholarship, which was not defined in the theory of Neo-Confucianism, and tried to spread his ideas in Joseon society.

The academic encounter between *Roh Su-sin* and *Lee Eon -jeok* was a chance to enrich and solidify the movements of Joseon academia in the mid and late 16th century.

**keywords**

*Roh Su-sin*(盧守愼), *Lee Eon-jeok*(李彦迪), Shimhak(心學), Joseon academia in the mid and late 16th century.

